

원불교 종교교육에서의 영성교육

- 생활영성 교육을 중심으로 -

백 준 흠 (광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원불교 영성이 생활영성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활용되도록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생활영성의 핵심은 일상생활 또는 일상성에 있다. 종교적 영성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떠나서 존재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영성의 가치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대상에 따라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이 영성의 주체자가 되어야 하고, 각자 처해 있는 현실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불교에서도 영성의 의미를 진리의 근원자리나 인간의 본성에 국한하여 그 의미를 좁게 규정해왔다. 그런 관계로 영성이 자신의 삶과 생활 더 나아가 사회현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원불교의 기본 교리인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 등은 원불교인 뿐만 아니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생활영성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불교 영성을 생활화하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의 역할이 새롭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제 원불교 종교교육은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원불교이념이나 교리의 전파, 원불교교도화를 넘어서서 종교성을 길러주는 종교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원불교 종교교육은 종파를 떠나 개인적으로 원만한 인격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상생과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여 행복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핵심 주제어 : 생활영성, 삼학, 사은, 상생, 평등, 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우리 인류 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상상을 초월한 변화와 편리함 속에 살고 있다. 동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인류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적 내면세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인간본성이나 인간 삶의 참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사회문화 교육 등 제도적 장치가 뒤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신문명의 취약성의 실상은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등이 잘 반증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인간성 내지는 건전한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방법 중의 하나로 ‘영성회복’, ‘영성함양’, ‘영성훈련’, ‘영성계발’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과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병리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영성을 들고 있다.¹⁾

문제는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영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영성의 논의가 우리 인간 사회 즉, 개인의 삶과 사회와 세상에 만족스러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 사회 주변을 되돌아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이제 그 어느때 보다도 영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영성의 참 가치를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영성의 논의는 학문적 논쟁이나 호교론적 종교적 도그마를 넘어서서 인간의 행복과 사회현실에 연결되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교육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종교교육은 인간에게 절대자유를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인간성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 영성을 일깨워주는 데 교육의 기점을 잡아야 한다.²⁾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원불교영성에 대한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원불교영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제시해 보면, 이경열의 “영성 구성요인”(2005)에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영성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다루고 있다. 류성태의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2005)에서는 영성의 개념과 영성 함양의 방법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백준홍의 “영성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고찰”(2006)에서는 원불교 교리를 통한 영성의 개념 도출과 교리와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고시용은 “원불교의 수행방법과 영성계발”(2008)에서 원불교 수행체계와 영성을 관련시켜 영성계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런 연구들이 영성에 대한 개념 도출과 영성계발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는 정도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원불교 영성이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에 유리되지 않고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생활영성의 의미를 살펴본 후, 원불교 종교교

1) 손원영, 『영성과 교육』(서울: 한들출판사, 2004), 15쪽.

2) 김용표 엮음,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 종교문화와 종교교육을 논한다』(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29쪽.

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생활영성적 덕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생활영성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영성에 대한 일반적, 종교적, 생활영성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영성은 인간과 그룹의 존재방식이나 양상으로 언급되는 광범위한 영역의 용어³⁾라고 할 정도로 ‘영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줄고 “영성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고찰”(2006)에서도 영성의 개념을 일반적, 종교적, 심리적 측면에서 정리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존의 영성개념은 간략히 다루고,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생활영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성이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이고,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총칭하며, 신적 또는 초월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각자의 확신에 따른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을 말한다.⁴⁾ 한편 종교적 영성으로서 기독교 영성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전제로 한 삶⁵⁾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중심주의와 타인중심주의⁶⁾를 말한다. 즉, 기독교 영성은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⁷⁾를 지니고 있다. 또한 종교적 영성으로서 불교 영성은 불성, 참나, 자성,⁸⁾ 또는 부처의 성질로서 불심, 자성청정심으로 깨끗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⁹⁾을 뜻하기도 하고, 우주만유의 본원이자 중생성불의 근거로서 우주적 마음인 진여, 진심, 불성을 불교적 영성의 의미로 규정하기도 한다.¹⁰⁾

그럼 다음으로 생활영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생활영성 개념의 핵심은 ‘일상생활’ 또는 ‘일상성’에 있다. 손원영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영성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영성이 단순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유리된 거대한 사전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성이 갖고 있는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변혁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

3) 홍종락 역, 『성령을 아는 지식』(서울: 홍성사, 2002), 77-8쪽.

4) 이흥근 역, 『영성신학』(분도출판사, 1987), 18쪽, 재인용.

5) 박형렬, 『성경적 영성 신학』(서울: 도서출판 치유, 2001), 41쪽.

6) 권택조, 『영성발달』(서울: 예찬사, 1999), 111-7쪽.

7) 이정철, 『기독교 영성과 타종교 영성의 비교연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9쪽.

8) 황수경, 『불교의 수행과 영성개발』, 『종교교육학연구』 28(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3-4쪽.

9) 노권용, 『불타관의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94-102쪽 참조.

10) 유영희 역, 『불교철학개론』(서울: 민족사, 1992), 272-4쪽.

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¹¹⁾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생활영성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신앙인의 갈망’으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이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로 통전화됨으로써 이웃사랑의 구현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 한다.¹²⁾ 이러한 생활영성의 의미는 스티븐스가 어느 잡지와와의 대담에서 나눈 글에 잘 드러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혼, 가정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이 영성훈련의 장이 아닐까요? 아침시간에 잠시 동안 영적인 태도를 가져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미학적인 차원의 영성훈련입니다.¹³⁾

또한 로렌스도 생활영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족하다.¹⁴⁾

위의 스티븐스와 로렌스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영성이란 각자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자와 교감하고, 자신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영성의 개념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을 함축한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그동안 인류가 겪어왔고, 또 앞으로 맞이할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⁵⁾

여기서 영성이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은 바로 생활영성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소중한 영성들이 형식적 종교적 행위에 머물거나, 인간 내면 깊숙이에서 잠자고 있으면서 막연히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고 본다. 영성의 가치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대상에 따라 제한을 받거나 다르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우리 개개인이 영성의 주체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의 가치가 아름답게 빛나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생활영성이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삶 속에서의 영성계발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원불교적인

11) 손원영, 앞의 책, 20쪽.

12) 위의 책, 21쪽.

13) Paul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박영민 역(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재인용.

14) Lawrence,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서울: 두란노, 1997), 76쪽 재인용.

15) 손원영, 위의 책, 15쪽 참조.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이룬 후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 하여 한 두 렷한 기틀을 지었도다’¹⁶⁾라고 하여 인간 삶의 축이 단생이 아닌 영생과 인과의 원리임을 밝혀주고 있으며, 개교의 동기에서는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이치에 따라 삼세라는 영생을 통해 성불제중하고 제생의세 하여 낙원세계를 이루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나 자신을 포함한 일체생령을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이 삶 그 자체이며, 그런 낙원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런 관점을 토대로 왜 삶 속에서 영성계발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짓는 대로 받는다는 자작자수의 인과원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는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전 즉, 삶의 텃밭에 아름다운 영성을 심고 가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영성을 계발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 또는 삶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둘째, 삶 속에서 영성을 계발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가치범주를 개인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상대 또는 타인 더 나아가 일체생령에까지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즉, 자신만의 자유, 해탈,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일체생령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삶 속에서 자신의 도리와 역할을 잘 해내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각자가 처한 생활 속에서 죄복의 권능을 가진 우주만물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 갈 때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고, 행복과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통해 볼 때 영성에 대한 생활영성적 의미규정과 활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생활영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원불교영성에 대한 생활영성적 재해석과 원불교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생활영성의 주요 덕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원불교 영성이해를 위한 교리 구조적 접근

1. 원불교 영성의 개념과 재해석의 문제

영성에 대한 의미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영성의 개념이 특정 종교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고안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확대하여 다른 종교 사

16) 『대종경』 서품 1장(『원불교전서』, 원불교정화사, 1977), 107쪽.

17)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하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하여 이교독락, 생사해탈, 복혜양족의 대낙원 세계에 도달케 하는 것이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교차하여 적용하고 더 나아가 종교 일반에 관한 보편적인 논리에 동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⁸⁾ 이런 점에서 앞서 밝힌 원불교 영성관련 선행논문들에서 언급된 영성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생활영성적 시각에서 영성개념에 대한 외연을 넓혀보고자 한다.

먼저 줄고 “영성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고찰”에서는 영성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일원상의 진리와 마음의 관점에서 성품, 본성, 정신, 본래마음으로 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원불교인이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해서 지녀야 할 교리이념과 교법정신 및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를 토대로 대자적 측면의 개인영성과 대타측면의 사회적 영성의 두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류성태는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에서 가설이라는 전제하에 원불교 영성 개념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종교적 영성 확충으로서의 ‘자성’ ‘불성’ ‘영지’ ‘정신’ ‘법열’ 등을 영성개념 도출의 추론 근거로 제시하면서 원불교 영성 개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진여자성으로서의 영성, 청정 불성으로서의 영성, 공적영지로서의 영성, 개벽으로서의 영성, 법열 총만으로서의 영성¹⁹⁾이 그것이다. 비록 가설적인 영성에 대한 개념 도출이긴 하지만 영성의 의미가 너무 종교적 원리나 심성적인 측면에 묶여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고시용은 “원불교의 수행방법과 영성계발”에서 최초의 임시교명과 성가 113장의 가사를 통해서 영성은 모든 생령들이 저마다 곁고루 간직하고 있고, 정신개벽으로써 일체생령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보금자리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불교 영성은 우주만유, 제불제성, 일체중생에게 두루 내재하는 법신불 일원상과 상통하는 것으로써 신령스러운 성품²⁰⁾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원불교 영성의 의미를 인간의 심성면에 국한시키고 있어 생활영성적 차원의 전체성과 사회현실성 그리고 역동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의미 규정들 자체를 부정하거나 어떤 오류가 있음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앞으로 영성의 소중한 가치들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영성개념에 대한 외연이나 범주를 넓혀가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이 시간과 공간 대상에 구애 없이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영성의 주체로서 행복한 인생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다음 장에서는 원불교 기본 교리와 관련하여 생활영성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8) 윤원철, 『불교와 영성』, 강남대학교신학대 편, 『종교와 영성』, 1998, 26쪽 참조.

19) 류성태,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 『영성과 마음공부』(익산: 한국원불교학회, 2005), 81쪽.

20) 고시용, 『원불교의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76쪽.

2. 원불교 기본교리에 대한 생활영성적 접근

1) 일원상 진리와 생활영성

여기서는 원불교 교리의 대강이자 기본교리라 할 수 있는 일원상의 진리와 삼학 팔조 그리고 사은사요를 중심으로 생활영성적 차원에서 영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원상장의 일원상의 진리를 보면,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제불 제성의 심인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空寂靈知)의 광명을 따라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전하여十方 삼계(十方三界)가 장중(掌中)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無始曠劫)에 은현 자재(隱顯自在)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²¹⁾

위에서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라 하여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적 측면과 심성적 측면에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원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근원적 영성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원적 영성이라 할 수 있는 일원의 진리가 바로 인간의 본래마음이기에 각자 생활 속에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우주만물의 본원답게, 부처의 심법으로, 중생의 본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매순간 마음을 작용함에 있어 공적영지의 광명을 나투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의 용을 나투어 가라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일원상의 수행과 일원상 법어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일원상의 수행을 보면,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²²⁾고 하였다.

위의 인용 법문을 보면 일원상의 수행이 각자의 마음이 일원상의 진리와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임을 알아서 잘 지키다가 생활 속에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생활영성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일원상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근

21)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1절 일원상의 진리(『원불교전서』, 원불교정화사, 1977), 23쪽.

22)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1절 일원상의 수행.

원영성으로서의 일원의 진리와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부단히 회복해가고 활용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²³⁾

또 일원상 법어를 보면,

이 원상(圓相)의 진리를 각(覺)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吾家)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제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陰陽相勝)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다.²⁴⁾

이 일원상 법어는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행동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수행자로 하여금 바른 깨달음과 원만한 실행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의 내용을 생활영성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임을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우주만물의 주인 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주만물을 책임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이며, 우주만물에 구애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해가는 것을 말한다. 우주만물이 둘 아닌 줄을 안다는 것은 우주만물을 평등심과 경외심으로 잘 모시고 살아야 함을 말한다. 제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안다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님을 알아 부처의 심법 즉, 각자의 본래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된다는 것은 생과 사가 거래하는 것이며, 변화의 소치임을 알아 해탈의 심경으로 영생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인과의 이치가 호리도 틀림이 없음을 알아서 잘 받고 잘 짓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진리 그대로, 본성 그대로 육근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활불이 되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원상 법어가 수행자를 위한 깨달음과 실천의 표준임과 동시에 인간 자신이 구유하고 있는 영성들을 생활 즉, 우주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본다. 특히 이 일원상 법어에서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라고 한 표현은 생활영성적 내용을 강력적으로 잘 드러내 준 것이라 본다.

23) 일원상의 수행을 생활영성과 연계시켜 논리를 전개시키는 이유는 근원적 진리인 일원 즉,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 또는 영성이라는 것이 제불조사만이 구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영성을 구유하고 하고 있음을 알고 처한 그곳 그곳에서 그 영성을 발견하고,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영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4) 『정전』 제2교의편, 제 1장 일원상, 제1절 일원상 법어.

2) 원불교 신앙문과 생활영성

다음은 원불교 신앙문에 해당되는 사온과 사요를 생활영성적 시각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교리도를 통해 원불교 교리구조를 보면, 일원의 중지 아래 원만한 신앙 수행의 길로서 진공묘유의 수행문과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밝혀 주고 있다.

먼저 신앙문의 사온은 우주만물의 존재 근원이자 상생상화의 원리로서 세계를 구원할 길²⁵⁾이라 하였다. 그 이유는 사온이 존재의 근원, 신앙의 근원, 윤리의 근원으로서 상생의 길과 감사보응의 길을 잘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사온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강령적으로 살펴보면, 천지는 만물에게 천지 8도를 행하되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히었고, 부모는 우리를 낳아 양육하여 인도대의를 가르쳐 주셨고, 동포는 자리이타의 도로써 상부상조 상의상자하게 해주었으며,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도로서 인간의 삶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²⁶⁾

그렇다면 이런 없어서는 살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소태산 대종사는 사온에 대한 보은조목에서 그 보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으나 여기서는 강령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천지 보은조목²⁷⁾에서는 천지 8도를 체 받아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갈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천지 8도는 일원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며, 그 도가 바로 우리의 본래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영성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영성이 본성이나 진리 그 자체로 인식되는 존재론적 의미에서 벗어나 천지은에 대한 보은 방법으로서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영성을 가치론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성의 가치론적 구체화는 천지 8도의 덕목들에 대한 생활영성적 시각에서 접근해 갈 때 가능한 것이다. 부모은의 보은 조목에서는 보은의 방법으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고,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의 보호,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포은의 보은조목에서는 사농공상이 각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의 도를 실행해야 함을 밝힘과 동시에 초목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고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이타의 영성과 상생 상화의 영성을 실천해 갈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마지막 법률의 보은 조목에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각각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한다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근거해서 매사를 처리해 감을 의미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고,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으며, 사회 국가 세계에 비치면 사회 국가 세계가 도움을 얻게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²⁸⁾ 이처럼 인도정의

25) 김대거, 『정전대의』(익산: 원불교출판사, 1977), 28쪽.

26) 김대거, 앞의 책, 28~31쪽 참조.

27)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온, 제1절 천지은.

28)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온, 참조.

의 공정한 법칙의 영성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라는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은은 우주만유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 또는 은혜의 덩치로 보는 은적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우주만물을 포함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 또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 만물을 살려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살림과 상생의 삶의 태도 등은 원불교 생활영성의 중요한 요소들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다음은 신앙문의 또 하나인 사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요는 세계 균등의 원리요 대도로써 세상을 고르는 길이고 평등세계를 이루는 길이며, 전반세계(氎盤世界)를 이루는 길²⁹⁾이다. 이 사요는 일원상진리의 평등이념에 바탕 하여 인류 사회에 원만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써 제시된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말한다. 앞서 밝힌 사은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즉 일체생령을 위한 불공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요는 평등사회 건설의 원리이자 실천덕목으로서 대 사회 내지는 인간사회를 향한 불공법이며, 사은에 대한 구체적 보은의 방법이다. 그럼 사요의 각 요지를 생활영성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자력양성은 자력을 양성하여 인권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그 핵심 요지다. 여기서 자력이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력양성은 자신을 비롯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신 육신 물질의 자주력을 세워 인권평등을 이루자는데 그 핵심이 들어 있다. 지자본위의 요지는 지자를 근본삼아 지식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식과 차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지자에게 배우게 되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롭과 동심에 생활에 진급이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져 원만한 평등사회가 될 것이다.

사요의 타자녀교육은 타자녀 교육을 잘하여 교육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그 핵심요지다. 자기 자녀에 대한 국집이 아닌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교육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 시대를 되돌아 볼 때, 교육시설의 문제는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자타의 국한을 넘어서서 두루 교육시키고자 하는 정신과 태도는 크게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화 발전된다 하여도 이런 자타의 국한을 초월한 교육정신 또는 영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요의 마지막 공도자 숭배의 요지는 공도자를 숭배하여 생활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공도자 숭배 의미를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은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써 숭배 하자는 것이며, 그 공도 정신을 체 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밝혀주

29) 김대거, 앞의 책, 33쪽.

고 있다.³⁰⁾ 생활영성적 측면에서 보면 공도자 숭배는 생활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과 은혜로움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공경과 감사함 그리고 존경심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자신도 그런 공도의 생활을 몸소 실행해 갈 때 공도숭배라는 참 영성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리라 본다.

이상에서 사요의 핵심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할 조목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를 당해서도 요청되고 적용되어야 할 바가 사요의 강령이다. 자력을 양성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인권평등을 이루고, 지자를 근본 삼아 잘 배워 지식평등을 이루며, 국한 없이 타 자녀를 두루 가르쳐서 교육평등을 이루며, 공도자를 숭배하여 생활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사요의 강령이다. 평등 이념을 전제한 이런 강령적 내용들이 원불교가 추구하는 평등사회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영성의 덕목들이다. 따라서 이런 영성 또는 사요의 정신들이 우리 인간의 삶 즉,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생활영성적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 원불교 수행문과 생활영성

삼학팔조 무시선 무처선을 근간으로 하는 수행문은 동정간 진리에 합일하는 표준이요 진리 그대로 육근동작을 해가는 표준이다. 이 가운데 삼학은 일원의 진리에 합일하는 세 가지 공부 길이요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 세 가지 공부 길로서 만생령 부활의 길이요 일체생령을 건지는 길이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삼학이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간도 떠날 수 없는 법³¹⁾이라 하면서 다시 삼학은 배를 운전해 가는데 지나침과 같고 기관수와 같은지라 삼학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어렵나니라³²⁾고 하여 삼학수행이 일상생활 또는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혀주었다. 그럼 삼학의 원문을 통해 원불교적 영성의 함의를 살펴본 후 생활영성으로서의 삼학공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삼학의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³³⁾

고 하여 영성으로서의 정신의 의미³⁴⁾와 그 영성회복 방법으로서 수양을 명료하게 밝혀

30) 「정전」 제2교의편, 제 3장 사요, 참조.

31) 「대종경」 교의품 18장.

32) 「대종경」 교의품 22장.

33) 「정전」 제2교의편, 제4장 삼학 정신수양의 요지.

34) 정산종사는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

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 내면으로서의 안과, 현실세계를 연계시킨 밖을 설정하여 영성함양의 길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생활영성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이 처한 그곳 그곳에서 본래마음으로서의 정신 즉, 자주력과 수양력을 키워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동정 즉, 생활 속에서 영성으로서의 수양력을 빠르게 키우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용할 때에 애착 탐착 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세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네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³⁵⁾

다음 사리연구의 요지를 보면,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를 이름이요, 이(理)라 함은 곧 천조(天造)의 대소유무(大小有無)를 이름이니, 대(大)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小)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춘. 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³⁶⁾

고 하여 사를 인간의 시비이해로, 이를 천조의 대소유무로 의미 짓고 있다. 여기서 대소유무는 우주의 원리인 일원의 진리와 마음의 원리를 뜻한다. 연구는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 즉, 일과 이치를 알아가는 공부를 말하고 있다. 소태산은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써 건설되고 시비이해의 일로써 운전해 가는 것인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결국 패가 망신에 이르게 됨을 사리연구 목적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 오래 계속해서 걸림 없이 아는 지혜의 힘 즉, 연구력을 얻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지혜의 영성인 연구력을 빨리 얻는 방법으로, 매사 그 일 그 일에 알음알이를 얻는데 힘쓰고, 의견교환하기를 힘쓰며, 연구순서에 따라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쓰며, 경전연습과 과거 도학가의 경전 공부를 통해 지견을 넓혀갈 것을 당부하였다.³⁷⁾ 이처럼 소태산은 동정간 즉, 생활 속에서 지혜의 영성을 키워가도록 하고 있다. 마

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령한 감이 있는 것이며, 이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라 하였다(『법어』 원리편 12장, 참조).

35) 『대종경』 수행품 2장.

36) 『정전』 제2교의편, 제4장 삼학 사리연구의 요지.

37) 위의 책, 사리연구 목적과 결과 참조. 천만 사리 간에 걸림 없이 아는 지혜의 힘인 연구력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자성의 해, 상시용융주의사항에서는 온전 생각 취사의 생각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막으로 작업취사의 요지를 보면,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³⁸⁾고 되어 있다.

위의 내용에서 작업은 육근을 작용하는 것이요 취사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취사 즉, 정의실행의 영성이다. 소태산은 이 정의실행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꽃에 잘 비유하고 있다.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로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³⁹⁾

고 하여 실행공부로서의 작업취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선을 좋아하고, 낙원생활을 원하면서도 삶 속에서 정의는 기어이 취하고, 불의는 기어이 버리는 실행공부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 즉, 취사력을 키워 갈 것을 당부하였다. 그 방법으로 정의는 죽기로써 실행하고, 불의는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며, 매사에 즉시 실행되지 않는다 하여 낙망하지 말고 정성심으로 끊임없는 공을 쌓으라⁴⁰⁾고 하였다. 특히 일상 속에서 자성의 계를 세우라고 하였고, 상시용용주의 사항 6조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대조하는 공부에 주의하라고 하여 영성으로서의 자성의 계 즉, 취사력으로서의 실행의 힘을 생활 속에서 키워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위에서 삼학이 정신수양을 통해 정신의 자주력을 기르고, 사리연구를 통해서는 걸림 없이 아는 연구력을 얻으며, 작업취사를 통해서 정의실행하고 불의를 버리는 취사력을 길러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만생령을 살리는 길임을 알아보았다. 특히 생활영성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이런 삼학의 영성적 요소들이 동정간 생활 속에서 회복되고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경계 가운데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⁴¹⁾ 이는 삼학수행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특히 중요한 점은 일상 속에서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부와 온전함에 바탕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38) 『정전』 제2교의편, 제4장 삼학 작업취사의 요지.

39) 『정전』 제2교의편, 제4장 삼학 작업취사의 목적.

40) 『대종경』 수행품 2장 참조.

41) 『대종경』 수행품 50장.

잘 밝혀준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 삼학은 세간, 현실생활, 인도에서 실천하는 공부법으로서, 각자 개인의 인격변화와 사회현실의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영성적 수행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삼학수행의 추진 원동력인 팔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팔조는 신 분 의 성의 진 행사조와 불신 탐욕 나 우의 사연사조를 말한다. 전자가 수행의 긍정적인 요소라 한다면 후자는 수행의 부정적 요소로써 버려야 할 내용이다. 팔조는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는 삼학수행의 기본 원동력이다. 삼학이 성불이라는 불지에 가기 위한 방법이라면 팔조는 그 삼학수행을 촉진 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팔조 가운데에서도 진행사조인 신분의 성은 수행과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팔조 가운데 진행사조의 원문을 통해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자.

신(信)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原動力)이니라. 분(忿)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의(疑)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성(誠)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⁴²⁾

위에서 신분의성은 만사를 이루는데 있어 마음을 정하고, 권면하고 촉진하며,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며,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신분의성이 만사를 이루는데 있어서 원동력이라는 점이다. 즉 신분의성의 진행사조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삶의 영성요소들인 것이다. 그래서 도가의 공부는 신분의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신분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날을 기약할 수 있다⁴³⁾ 하였다. 또한 신분의성을 마음공부에 들이대면 삼학공부에 성공하고, 사농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한다⁴⁴⁾고 하였다. 이처럼 신분의성은 인간 개개인이 구유하고 있는 소중한 영성들로서 만사를 성공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신분의성을 사농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한다고 한 것은 사농공상이라는 인간생활 자체 내지는 사회 그 자체 속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바로 신분의성의 생활영성적 성격을 잘 밝혀주고 있다 하겠다.

42) 『정전』 제2교의편 제 8 장 팔조.

43) 『대종경』 신성품 3장.

44) 『법어』 권도편 32장.

IV. 원불교 종교교육에서 영성교육의 기점

1. 종교교육과 영성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과학문명은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혼돈으로 인한 도덕윤리 부재현상, 동반자살 사건, 인간성 상실 등의 부정적 현상들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그 역할은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종교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사회는 비례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들이 각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종교의 안과 밖에서 교조의 근본정신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종교교육은 종교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모든 종교가 교리와 제도와 형식이 다르지만 세상을 바르게 하고 일체생령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다⁴⁵⁾라 하여 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 물량적 수량적 측면에서의 양적팽창만을 추구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화나 선교 형태의 종교 교육이 아니라 건전한 종교성과 인성을 길러주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⁴⁶⁾ 정진홍은 종교교육의 모호성을 언급하면서 그 모호성의 극복 방안 중의 하나로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문화를 이해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종교교육이 특정한 종교의 신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문화의 이해를 통해 인류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종교간 소통과 건전한 종교문화 창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이런 점에서 원불교 종교교육도 교단주의나 호교론적 입장에서의 원불교이념이나 교리를 전파하거나, 원불교 교도화를 위한 종교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종교본질 내지는 성자의 근본정신을 통해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찾게 하고, 인간을 포함한 우주대자연에 대한 존중감, 이웃에 대한 사랑,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서의 은혜에 대한 인식, 인류의 공동의 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등 이른바

45) 『대종경』 교의품 1장.

46) 김귀성, 『불교계대학에서 종교교육의 문제』, 『원불교사상과문화』 27집(익산: 한국원불교학회, 2004), 64쪽 참조. 김귀성 교수는 종교교육이 종교교화나 선교의 관점에 서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한 사랑, 은혜의 공동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종교성을 길러주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7)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5~9쪽 참조. 정진홍 교수는 종교교육의 모호성으로 종교과 설치의 합법성이 지나는 모호성, 종교교육 내용의 모호성, 종교교육 실시의 현장에서의 모호성을 들고 있다.

종교성과 인간성 그리고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종교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종교성 내지는 영성을 키워주는 종교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 일상수행의 요법과 생활영성 교육의 덕목

앞에서 생활영성의 개념과 원불교 영성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 더 나아가 기본교리를 생활영성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종교교육이 성자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종교성과 인간성 내지는 영성을 길러주는데 그 기점을 잡아야 함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제 원불교 종교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담아내야 할 생활영성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교리에 근거해서 제시하려고 한다. 다만, 본 장에서는 영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적 영성을 생활영성화 내지는 보편화하기 위해서 원불교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심적 덕목들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교리 전반에 걸쳐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리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일상수행의 요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심지(心地)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自性)의 정(定)을 세우자.
-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慧)를 세우자.
- 3)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戒)를 세우자.
-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⁴⁸⁾

위의 일상수행의 요법은 일원상 진리에 근거한 삼학팔조 사은사요의 교리를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교리적 생활 표준으로서 원불교인의 생활 표준이며, 생활신조로 이것은 개인적 인격 완성을 토대로 한 사회발전과 사회발전을 통한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원불교 종교교육에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과 관련해서 어떤 생활영성적 덕목들이 길러져야 할 것인가.

첫째, 전인적 인격을 이루는 영성 덕목들이 생활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 이 123조는 삼

48) 『정전』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학수행의 내용으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중요한 길이다. 이 123조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마음의 온전함의 영성, 일과 이치에 밝은 지혜의 영성, 불의는 버리고 정의의를 취하는 실행의 영성을 실천케 하는 이른바 인간성 회복을 통한 전인적 인격을 이루게 하는 길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그일 그일을 당해 마음의 온전함을 지키게 하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게 하며, 정의의를 실행케 함으로써 원만한 인격의 모습을 갖추도록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격형성의 긍정적 요소인 믿음, 분발심, 알고자하는 마음, 정성심이라는 영성 덕목들을 종교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신분의성이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이라 하였다.⁴⁹⁾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매사에 바른 믿음과 분발심,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태도, 간단없이 정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몸에 배이도록 가르쳐 자신의 일과 인생에 성공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5조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이다. 이 5조는 원불교 사은사상을 압축한 것으로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을 하는 은혜와 감사의 생활영성 덕목을 잘 길러주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생활을 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을 당해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원망할 일을 당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은혜와 감사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사은장에서 일체생령이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로서의 은혜를 밝히면서 개인적으로는 천지 부모 동포 범물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을 하고, 관계 속에서는 상생과 자리아타의 마음으로 공생공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⁵⁰⁾ 이처럼 원불교의 사은사상에 들어 있는 은혜발견과 감사의 영성, 자리아타와 상생의 영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상수행의 요법 6~9조는 원불교 사요사상의 핵심내용이다. 사요는 세상을 고르는 길이요, 평등세계를 이루는 길이며, 전반세계를 만드는 대사회불공법이다. 제6조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자력양성의 조목이다. 여기서 자력이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6조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신 육신 물질의 자주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종교교육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제7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지자본위의 내용이다. 이는 평소 일상 속에서 지자를 근본삼아 어떤 차별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배울 자리에서 잘 배우는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8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타자녀교육의 조목이다.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잘 가르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볼

49) 『정전』 제2교의편, 제5장 팔조.

50)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은 참조.

때,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교육의 정신과 도학과 과학의 조화로운 교육의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은 열리지 못한 사람이요 큰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서로 서로 잘 가르치는 생활을 하도록 종교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제9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사요의 공도자승배 조목이다. 생활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과 은혜로움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공경과 감사함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 온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공익심 있는 생활이라 가르쳐 주었다.⁵¹⁾ 이와 같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력생활, 잘 배우는 생활, 잘 가르치는 생활, 공익심 있는 생활을 해가도록 종교교육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바로 평등의 사회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고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일상수행의 요법 1~4조는 공부의 요도로서 개인적으로 원만한 인격 내지는 부처를 이루는 소중한 공부길 입과 동시에 실천덕목들이다. 또한 5~9조는 인생의 요도로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사회, 평등의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들이다. 따라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원불교인이든 이웃 종교인이든기간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안으로는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 가고, 밖으로는 상생과 평등의 영성에 입각해서 늘 감사생활하고, 자력생활을 해가며, 잘 배우고 가르치며, 매사에 공익심을 발휘케 하는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원불교 종교교육의 기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원불교의 참된 종교교육의 가치는 원불교의 교리나 이념을 주입시키고, 교도를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주체적으로 열어감과 동시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원만히 수행해 갈 수 있는 인간화교육, 사회화교육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⁵²⁾

V. 나오는 말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인간성 상실 내지는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커다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영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51) 『정전』 제2 수행편,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52) 물론 현재도 마음대조 공부, 마음일기, 문답감정 공부, 명상과 선을 통한 마음 찾기, 은혜발견하기, 유무념 공부, 감사 표현하기 등의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원불교 교리를 통한 영성교육으로 인간화 교육 또는 사회화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대상에 맞는 언어의 보편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또 현대사회의 공통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 영성에 대한 이해와 계발은 그 종교의 존재이며 종교교육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⁵³⁾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종교교육을 통한 영성회복, 영성훈련, 영성계발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원불교 역시 그동안 마음공부라는 형태로 인간성 회복의 문제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세상에 보편화된 영성이라는 시각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종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영성의 기본적 이해와 아울러 영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영성에 대한 종교교육의 방향 내지는 기점을 제시해 보려고 했다. 특히 생활영성이라는 영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영성의 생활화 내지는 종교교육의 내실화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근원적, 이법적, 절대적 영성 또는 본체적 측면에서 영성의 의미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상적, 현실적, 삶의 현상에 연계시켜 영성의 의미 폭을 넓혀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절대적 영성 또는 내재적 영성이든, 넓은 의미의 생활영성이든 인간 삶의 현실과 사회의 중심을 떠나지 않고, 시간과 대상과 장소에 구애 없이 처한 그곳 그곳에서 영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영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원불교 교리의 강령인 일상수행의 요법을 들어 생활영성 교육의 일단을 제시하였다.⁵⁴⁾ 일상수행의 요법 123조를 통해서는 마음의 온전함, 바른 생각과 판단, 정의 실행의 덕목, 4조에서는 일과 인생에 있어서 필수요소이자 인격형성의 긍정적 요소인 믿음, 분발심, 알고자하는 마음, 정성심 등의 덕목, 5조에서는 은혜 발견하기와 감사생활 하기의 덕목, 6~9조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력생활, 잘 배우고 가르치는 생활, 공익심 등의 덕목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제 모든 성자들의 본의, 성자들의 가르침 즉, 종교적 영성을 각 종교이념에 묶어 놓거나, 종교적 울타리에 가두어 놓아서는 않된다고 본다. 물론 각 종교적 정체성 내지는 도그마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교단주의나 호교론적 태도를 넘어서서 개개인의 종교성 함양과 종교의 사회화⁵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착안하여 원불교의 종교교육이 거듭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53) 이재영, 『통일교 수행법과 영성계발』, 『종교교육학연구』 28(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56~7쪽.

54) 원불교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생활영성 교육은 일상수행의 요법에 한정된 것이 아닌 원불교 교리 정신과 헌규정신 그리고 창립정신 등으로 그 폭을 넓혀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법정신에서 생활영성의 덕목들을 찾아 종교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영성 덕목들도 생활영성에 대한 종교교육 방향의 일단을 제시한 것이므로 앞으로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접근되고 프로그램화 되어야 할 것이다.

55) 김귀성, 『종교교육과 인간성 회복』, 『정신개벽』 14집(익산: 신통교학회, 1995), 21~3쪽 참조.

참고문헌

〈경전류〉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5.

〈단행본〉

김용표 엮음.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 종교문화와 종교교육을 논한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박영민 역.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박형렬. 『성경적 영성신학』. 도서출판 치유. 2001.

손원영. 『영성과 교육』. 한돌출판사. 2004.

이흥근 역.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1987.

유영희 역. 『불교철학개론』. 민족사. 1992.

윤종석 역. 『하나님의 임재연습』. 두란노. 1997.

홍종락 역. 『성령을 아는 지식』. 홍성사. 2002.

〈논문류〉

고시용. 「원불교 수행방법과 영성개발」.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 2008.

김귀성. 「종교교육과 인간성 회복」. 『정신개벽』 14집. 1995.

김귀성. 「불교대학에서 종교교육의 문제」. 『원불교사상과 문화』 27집. 2004.

노권용. 「불타관의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류성태. 「원불교 영성함양의 방법」. 『영성과 마음공부』. 한국원불교학회. 2005.

백준흠. 「영성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고찰」. 『원불교사상과 문화』 32집. 2006.

양은용. 「생명 영성의 문제와 불교」. 『원불교사상과 문화』 39집. 2008.

이경열. 「영성 구성요인」. 『영성과 마음공부』. 한국원불교학회. 2005.

이정철. 「기독교 영성과 타종교 영성의 비교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재영. 「통일교 수행법과 영성개발」.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 2008.

윤원철. 「불교와 영성」. 『종교와 영성』. 강남대학교신학대 편. 1998.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황수경. 「불교의 수행과 영성개발」.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 2008.

원고접수: 2009년 5월 9일 1차심사: 6월 4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소개: 백준흠

① 전공: 불교학 / 소속: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부교수

② 관심영역: 실천교학, 교의학

③ 주요논저: 「원불교삼학수행의 실천방향」, 「종교의 세속화와 원불교의 교화 방향」, 「삼동윤리에서 본 종교다원주의」, 「원불교 사회기능의 발전방향」, 「원불교 순교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처처불상 신앙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종교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불교 삼학의 연구」, 「원불교의 도덕관」, 「원불교 신앙 강화를 위한 과제」, 「경전 강연 회화에 관한 연구」, 「원불교 훈련법의 특징과 활성화 방안」, 「원불교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정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에 관한 연구」, 「영성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고찰」, 「원불교 교화단에 관한 연구」, 「기독교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본 원불교교화단 활성화 방안」, 「원불교 교당 교화구조 개선방안 연구」

④ E-mail: hschung@suwon.ac.kr

Abstract

**Spirituality of Education in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Focused on Life Spirituality-**

Baek, Junhum

Won-Buddhism Graduate School

This study aim at explaining that spirituality is understood by life-spirituality, in addition to that religious education must be accomplished in spot of life for practice and application. The point of life-spirituality consist in daily life or usual life. This means that religious spirituality is not apart from self life and society. The value of spirituality must not be restricted in special time, space, object. Each and every person must be become the main body of spirituality. Spirituality be manifested in every individual of reality and relations with object. Meanwhile wonbuddhism have understood narrowly the mean of spirituality as truth source and human nature. Such reason, spirituality have a little effect on self life, existence and society reality.

The truth of il-won-sang and the fourfold grace, the four essentials, the threefold study, the eight articles, basis doctrine of wonbuddhism, preserve essential element of life-spirituality that not only wonbuddhism but also mankind must practice. For life and universality of wonbuddhism spirituality, the role of religious education is requested freshly. Now, the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must be substantial in religious essence. Wonbuddhism does it's best for religious education to cultivate religiosity beyond propagation of dogma, believerization of wonbuddhism. In future, the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make all-round character beyond a religious denomination, in social side, focus to be hero of happy life through value realization of co-existence and equality in existence.

Key words : Life-Spirituality, Threefold Study, Fourfold Grace, co-Existence, Equality, Religious Rducation